수업에서 바로 읽고 질문하고 다시 말해 보는 역할극 세트

종 치기 전에 제 말부터요

학생용 역할극 대본과 교육자용 40분 수업 안내

대상	초등 3~6학년 기본 말투는 4학년 수준
활용	생활교육 학급회의 역할 읽기
등장인물	선생님 민우 지호 수아 해설
낭독 시간	약 8분 실제 소리 내 읽기 속도에 따라 조정
전체 수업	40분
교육 목표	필요한 도움을 말하기 보이는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서로의 수업 시간을 존중하기

생활교육 메시지

필요한 도움은 말로 전하고 보이는 행동 뒤의 사정은 물어보아요

@드라마에듀랩 dramaedulab.org

학생용 역할극 대본

이 대본은 선생님과 학생의 말이 엇갈리는 순간을 웃으며 살펴보고, 행동 뒤의 사정을 묻는 연습을 돕습니다. 작품 속 민우와 지호의 사정은 이 이야기의 설정입니다. 비슷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역할 선택

역할	읽기 단서
선생님	수업 흐름을 지키려 하지만 아이의 신호를 뒤늦게 알아차린다.
민우	급한 말을 꺼낼 때 망설임과 다급함이 함께 보인다.
지호	모르는 것을 숨기려다 시계에 마음이 쏠린다.
수아	친구를 살피고 장면의 긴장을 가볍게 풀어 준다.
해설	표정과 손동작, 공책의 상태를 천천히 알려 준다.

읽기 약속

- 대사 앞의 역할명을 확인하고 한 화자씩 또렷하게 읽습니다.
- 대괄호 속 지문은 짧게 읽거나 행동으로 보여 줍니다.
- 멈춤 표시에서는 다음 장면을 넘기기 전에 대본 속 인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연기를 원하지 않으면 해설이나 관찰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면 1 선생님의 결정적 순간

낭독 약 1분 · 누적 약 1분

[수업 시작. 선생님이 칠판에 오늘의 핵심 문장을 쓰고 있다. 민우는 배를 살짝 누른 채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인다.]

해설: 선생님은 칠판 아래에 굵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교실의 시선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민우의 시선만 문과 선생님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민우가 손을 번쩍 든다.]

민우: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교실 여기저기에서 작게 웃음이 난다. 선생님도 잠깐 말을 멈춘다.]

선생님: 선생님은 핵심으로 가고 있었는데, 너는 화장실로 가는구나.

수아: 두 분 다 목적지는 분명하네요.

선생님: 그러네. 민우야, 급하면 먼저 다녀와. 복도에서는 뛰지 말고 걸어서.

민우: 네! 금방 다녀올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교실을 나간다. 선생님은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칠판을 가리킨다.]

선생님: 좋아. 선생님의 목적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필요한 말을 알맞게 전하는 방법이야.

멈춤 ① 관찰 선생님과 민우는 각각 무엇이 급했나요

장면 2 시계와 눈싸움

낭독 약 1분 20초 · 누적 약 2분 20초

[필기 시간. 칠판에는 세 줄의 핵심 문장이 적혀 있다. 지호의 공책에는 제목만 적혀 있다.]

해설: 지호는 칠판을 보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연필을 들었지만 어느 줄을 써야 할지 찾는 동안 칠판에는 다음 문장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옮기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중요한 낱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아이들이 연필을 움직인다. 지호는 제목 아래에 점 하나를 찍고 다시 시계를 본다.]

지호: 선생님, 이제 쉬는 시간인데요?

선생님: 아직 종 안 쳤어.

지호: 시곗바늘은 거의 도착했는데요.

선생님: 그 바늘보다 네 연필이 먼저 출발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웃는다. 지호도 따라 웃지만 공책을 팔로 살짝 가린다.]

수아: 지호야, 시계랑 눈싸움 중이야?

지호: 아니. 그냥… 누가 먼저 끝나나 보는 거야.

선생님: 시계는 늘 자기 일을 해. 우리도 지금 할 일을 조금만 더 해 보자.

해설: 지호는 연필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칠판의 첫 줄과 공책의 빈칸을 번갈아 보다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면 3 비어 있는 자리 비어 있는 공책

낭독 약 1분 · 누적 약 3분 20초

[민우가 교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다.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칠판의 둘째 줄을 짚는다.]

선생님: 민우야, 여기 둘째 줄부터 이어 쓰면 돼. 첫 줄은 수업 끝나고 사진으로 확인하자.

민우: 네. 알려 주셔서 감사해요.

[민우가 자리에 앉아 공책을 편다. 지호는 자기 공책을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

수아: 지호야, 너도 여기까지 썼어?

지호: 응… 거의.

수아: 거의 어디? 거의 시작? 거의 끝?

지호: 거의… 쉬는 시간.

[수아가 웃다가 지호의 공책을 보려 하자 지호가 팔로 가린다.]

해설: 지호는 시계를 볼 때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필 끝은 공책에 닿기 전에 멈췄습니다. 제목 아래의 점 하나만 점점 진해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 문장만 정리할게.

지호: 마지막이면…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마지막 문장이니까 써야 끝나지 않을까?

[지호가 대답하지 못하고 시계만 본다.]

멈춤 ② 추측 지호가 시계만 보는 까닭을 공책과 연필에서 찾아보세요

장면 4 말하지 못한 두 가지

낭독 약 2분 · 누적 약 5분 20초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크게 묻지 않고 민우 책상 옆으로 다가간다.]

선생님: 민우야, 아까는 많이 급했니?

민우: 네. 사실 조금 전부터요.

선생님: 그런데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

민우: 손들려고 했는데 계속 중요한 말씀 하셔서요. 제가 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기다리다가… 정말 급해졌어요.

[선생님이 잠깐 멈춘다. 민우가 공책의 둘째 줄을 쓰기 시작한 것을 확인한다.]

선생님: 중요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기다린 거구나. 다음에는 급한 일이면 먼저 짧게 말해도 괜찮아. 다녀온 뒤 어디부터 할지는 선생님이 알려 줄게.

민우: 그럼 "급해서 먼저 다녀와도 될까요?"라고 말할게요.

선생님: 좋아. 그 말이면 충분해.

[선생님은 지호 책상 옆으로 이동한다. 지호의 공책을 빼앗아 보지 않고 같은 높이로 몸을 낮춘다.]

선생님: 지호야, 첫 줄부터 못 쓴 거야, 중간부터 놓친 거야?

[지호가 시계에서 눈을 떼고 공책을 본다.]

지호: 제목 쓰고 고개 들었는데 벌써 다음 줄이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어느 줄부터 써야 할지 헷갈렸어?

지호: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들 쓰고 있었어요. 저만 못 쓴 것 같아서요.

수아: 나는 지호가 그냥 쉬고 싶은 줄 알았어.

지호: 쉬고 싶기도 했어.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종 치면 안 써도 될 줄 알았어요. 모르는 게 들킬까 봐 시계만 봤어요.

선생님: 시계를 보고 있던 게 시작할 곳을 못 찾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네.

지호: 다음에는 “어디부터 써요?”라고 말해 볼게요. 그런데 말할 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선생님: 알겠어. 선생님도 필기 시작점을 더 분명하게 표시할게.

멈춤 ③ 관점 전환 처음 생각과 달라진 점과 사정을 알게 한 질문을 찾아보세요

장면 5 선생님도 놓친 한 줄

낭독 약 1분 30초 · 누적 약 6분 50초

[선생님이 칠판으로 돌아가 둘째 줄 옆에 별표를 그린다.]

선생님: 나는 설명을 놓칠까 봐 바빴는데, 너희가 보내는 신호를 놓쳤네. 미안해.

[선생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지호의 공책에서 시작할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는다.]

선생님: 지호야, 지금은 여기 한 줄부터. 칠판의 별표 문장과 같은 곳이야.

지호: 여기부터요?

선생님: 응. 다 못 쓰면 쉬는 시간을 전부 쓰게 하진 않을게. 핵심 한 줄을 먼저 쓰고, 나머지는 이어 쓸 방법을 같이 정하자.

지호: 그럼 첫 줄은 수아 공책을 보고 확인해도 돼요?

수아: 내가 천천히 보여 줄게. 대신 다음에는 모르면 먼저 말하기.

지호: 알겠어. 시계한테 물어보지 말고 사람한테 물어보기.

민우: 나는 너무 급해지기 전에 말하기.

선생님: 좋아. 선생님은 설명 중간에 질문할 시간을 알려 주고, 필기 시작점에 별표 하기.

[지호가 처음으로 연필을 움직인다. 제목 아래의 진한 점 옆에서 한 문장이 천천히 시작된다.]

해설: 한 줄은 길지 않았지만, 어디서 시작할지 알게 된 지호의 연필은 더는 시곗바늘과 겨루지 않았습니다.

장면 6 진짜 쉬는 시간

낭독 약 1분 10초 · 누적 약 8분

[종이 울린다. 아이들이 공책을 덮으려 한다. 선생님이 칠판의 별표를 가리킨다.]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쓴 곳에 표시하고 공책을 덮자.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이어 쓸 사람은 손으로 별 모양을 보여 줘.

[지호가 손을 든다.]

지호: 선생님, 이 한 줄만 끝내고 나가도 돼요?

선생님: 아까는 종이 빨리 울라더니?

지호: 이제 어디 쓰는지 알아서요. 끝까지 쓰고 싶어요.

수아: 지호가 시계랑 화해했네.

지호: 완전히는 아니야. 쉬는 시간은 소중하니까.

민우: 맞아. 수업 시간도 소중하고 화장실도 소중하고.

선생님: 그러니까 필요한 말을 제때 알려 주고, 서로의 시간을 함께 지키는 거야.

[지호가 마지막 낱말을 쓰고 공책을 덮는다.]

지호: 다 썼습니다. 이제 진짜 쉬는 시간!

선생님: 좋아. 다음 시간에도 모르는 곳은 시계보다 먼저 선생님에게 알려 주기.

지호: 네. 별표 신호도 써 볼게요.

해설: 선생님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며 칠판 한쪽에 작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필요한 말은 먼저 해도 괜찮아.” 지호는 공책 첫 줄 옆에 작은 별을 그렸습니다.

멈춤 ④ 실천 세 사람은 다음 시간에 어떤 말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필요한 도움은 말로 전하고 보이는 행동 뒤의 사정은 물어보아요

교육자용 40분 수업 안내

이 수업은 행동을 평가하기 전에 대본 속 단서를 관찰하고, 필요한 도움을 말로 요청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 방식을 조정하는 연습입니다. 실제 학생을 지목하거나 개인 경험을 공개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 목표

- 두 인물의 필요를 함께 살피고 보이는 행동만으로 이유를 단정하지 않는다.
-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짧고 구체적인 요청 문장을 말해 본다.
- 학생의 요청과 교사의 수업 운영을 함께 바꾸는 실천을 정한다.

수업 전 준비

- 등장인물 5개 역할표 또는 역할카드
- 학생용 대본 인쇄본과 필기도구
- 칠판 또는 화면에 표시할 네 가지 멈춤 번호
- 연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관찰 역할

안전한 운영 원칙

“우리 반에서 누가 지호 같나요?”처럼 실제 학생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개인 경험 공개는 선택으로 두고 대본 속 인물에 대해서만 말해도 충분하다고 안내합니다. 화장실 요청은 생리적 필요를 참는 예절 문제로 다루지 않으며, 지호의 행동을 특정 질환이나 성격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40분 수업 운영표

단계	시간	진행 내용
도입	4분	“설명 중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를 생각하고 한 문장으로 나눈다.
역할 선택과 준비	3분	역할과 읽기 단서를 확인한다. 연기를 원하지 않으면 관찰 역할을 선택한다.
1~3장 읽기와 발문	7분	멈춤 ①과 ②에서 질문한다. 지호의 사정은 아직 공개하지 않는다.
4~6장 읽기와 발문	8분	멈춤 ③과 ④에서 처음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핀다.
장면 바꿔 말하기	10분	학생의 도움 요청과 교사의 응답을 짝으로 연습하고 역할을 바꾼다.
우리 반 약속	5분	화장실 신호, 놓친 부분 알리기, 수업 종료 안내 방식을 정한다.
마무리	3분	오늘 바꿔 볼 말 한 문장을 쓰고 생활교육 메시지를 함께 읽는다.
합계	40분	낭독과 발문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진행자가 기억할 흐름

관찰 → 추측 → 관점 전환 → 실천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②에서는 정답을 빨리 찾기보다 여러 가능성과 근거를 말하게 하고, ③에서 새 정보를 듣고 생각을 고쳐도 괜찮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컬러 발문 연결표

번호와 단계	삽입 위치	교육자용 발문	관찰할 내용
① 관찰	1장 끝	선생님과 민우는 각각 무엇이 급했나요?	두 사람의 필요를 함께 보는가
② 추측	3장 끝	지호가 시계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책과 연필에서 찾은 단서는요?	단정 대신 여러 가능성과 근거를 말하는가
③ 관점 전환	4장 끝	처음 생각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어떤 질문으로 사정을 알게 됐나요?	새 정보를 듣고 생각을 수정하는가
④ 실천	6장 끝	민우 지호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바꿀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학생과 교사의 실천을 모두 제안하는가

발문별 후속 질문

① 관찰 “중요한 설명”과 “급한 필요”를 함께 존중하려면 어떤 안내가 필요할까요?

② 추측 “쉬고 싶어서” 말고도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③ 관점 전환 “왜 안 썼어?”와 “첫 줄부터 못 쓴 거야, 중간부터 놓친 거야?”는 무엇이 다른가요?

④ 실천 학생만 바꾸거나 교사만 바꾸는 답이 되지 않도록 양쪽의 실천을 한 가지씩 찾아보세요.

장면 바꿔 말하기

두 사람이 한 상황을 골라 30초 동안 읽습니다. 같은 대화를 역할을 바꾸어 한 번 더 읽고, 어떤 말에서 마음이 편해지거나 불편해졌는지 짧게 나눕니다.

상황	학생의 연습 문장	교사의 연습 문장
급히 화장실에 가야 할 때	선생님, 급해서 먼저 다녀와도 될까요?	다녀와. 돌아오면 이어 할 곳을 알려 줄게.
필기 시작점을 놓쳤을 때	어디부터 써야 할지 놓쳤어요.	여기 표시한 문장부터 시작해 보자.
쓰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때	한 줄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핵심부터 적자. 나머지는 이어 볼 방법을 정하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궁금할 때	마무리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이 문장 정리하고 끝낼게. 마지막 1분은 정리 시간이야.

표현을 고르는 기준

☐ 지금 필요한 도움을 한 문장으로 말했는가

☐ 상대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 알 수 있는가

☐ 수업 흐름과 학생의 필요를 함께 고려했는가

☐ 명령이나 비난 대신 다음 행동을 제안했는가

짧은 역할 바꾸기 기록

마음이 편해진 말:

_____

조금 불편했던 말: _____

다시 말해 본 문장:

_____

우리 반 도움 신호와 수업 약속

반 전체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각 항목에서 하나씩 정합니다. 특정 학생만을 위한 규칙처럼 보이지 않도록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씁니다.

항목	우리 반이 정한 방법
급한 화장실 요청	_____
놓친 부분 알리기	_____
필기 시작점 표시	_____
수업 종료 예고	_____
다음 시간에 이어 하기	_____

교육자 관찰 기록

관찰 항목	실제로 나온 말 또는 행동	다음 도움
두 사람의 필요를 함께 봄		
근거를 들어 여러 가능성을 말함		
새 정보를 듣고 생각을 수정함		
구체적인 도움 요청을 말함		
학생과 교사의 실천을 함께 제안함		

마무리 한 문장

다음 수업에서 내가 바꿔 볼 말이나 행동

_____

_____

_____

_____

최종 점검표

☐ 등장인물 수와 역할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한다.

☐ 장면 번호와 멈춤 질문 번호가 학생용과 교육자용에서 일치한다.

☐ 학생의 사정을 알기 전과 후의 교사 질문이 다르게 보인다.

☐ 화장실 요청을 바로 허용하며 생리적 필요를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지호의 공책과 연필 동작이 반전 전에 단서로 제시된다.

☐ 학생의 도움 요청과 교사의 수업 운영이 함께 달라진다.

☐ 한 번의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끝내지 않는다.

☐ 컬러가 없어도 번호와 단계명으로 발문 위치를 찾을 수 있다.

☐ 실제 소리 내 읽어 낭독 시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장면별 시간을 조정한다.

☐ 인쇄 전 모든 쪽의 글자 잘림과 쪽 나눔을 확인한다.

수업 후 메모

실제로 나온 말

_____

_____

_____

_____

다음 수업에서 제공할 도움

_____

_____

_____

_____